

제3호 2017년 2월

대  
자연  
사랑

The Nature Love

자연과 조화되는 삶  
자연과 인간은 하나

사단법인대자연사랑실천본부

The International Nature Loving Association Korea

# 대자연사랑실천본부는

국제대자연사랑실천본부의 한국 지부로  
2011년 3월 환경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며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지구촌 실현을 위해  
생명존중과 자연사랑을 실천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Cover Design  
여도환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발행정보 | 통권 제 3 호  
발행일 | 2017년 2월 28일  
발행인 | 변정환  
편집인 | 이광조  
발행처 | 사단법인 대자연사랑실천본부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원6안길 23  
연락사무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전화 | 02-732-1359  
팩스 | 02-732-1357  
홈페이지 | <http://the-inla.or.kr>  
이메일 | [inlakorea@daum.net](mailto:inlakorea@daum.net)  
디자인 | 티팩토리  
인쇄 | (주)아이앤피

PRINTED WITH  
**SOY INK**  
콩잉크로  
제작되었습니다.



08



16



20



24

## 목 차

### 04 이사장 인사말

#### 법인소개

05 대자연사랑실천본부를 소개합니다

06 사업소개

07 법인연혁

#### 대자연문화

08 환경문화예술NGO 그린폴하모니의 첫 울림  
자연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지구 이야기

14 네츄럴에코, 자연의 몸짓  
2016 가을, 생활체조경연대회에서  
행복체조를 시범하다

#### 자연과 환경

16 대구지부 생태문화탐방  
상주 경천섬 일대로 떠난 추계환경정화활동

#### 특별취재

20 2016 대자연청년여름캠프  
자연사랑 동아리와 송도청년팀의 그날의 후기

24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대구지부·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자연사랑동아리가 함께한 지속가능 활동

#### 대자연칼럼

32 지속가능발전이란?

36 행복 합시다!

#### 대자연파트너

40 DGB금융그룹의 환경사랑과 지속가능경영

#### NEWS

42 본부소식 · 지부소식 · 인물동정

44 회원알림



### 이사장 변정환

대구의한대학교 설립인  
현)대구의한대학교 명예총장  
현)제한한의원 원장

## ‘대자연사랑’ 제3호의 큰 의미

대자연사랑실천본부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자연사랑’ 독자 여러분! ‘삼세번’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일이든 소망하는 바를 더도 덜도 말고 꼭 세 번에 이를 것이란 희망을 가지게 하는 말입니다.

‘대자연사랑’ 회지가 창간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제3호를 여러분 앞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생적인 봉사로 활동해주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대자연사랑 실천운동에 동참하며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많은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룻밤 지날 때마다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여러 이변異變들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더는 막아낼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듯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대자연으로 구성된 지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환경을 벗어난 생활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의 괴멸현상은 인간이 그동안 과학문명과 편의성만 내세우며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으로 잔인하게 자연을 파괴한 결과로서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가꾸고 지켜가면서 공존共存해야 한다는 정신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지금 우리가 함께 이끌어가는 이 대자연사랑실천운동이 더 큰 성과로 다가올 미래를 확신하며 다 같이 매진하여 도약의 발판을 다져 나갑시다.

다시 한 번 ‘대자연사랑’ 제3호의 발간을 축하하면서, 회지 발간에 애쓰신 편집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대자연사랑을 위해 다 함께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봄을 맞이하며  
사단법인 대자연사랑실천본부 이사장 **변정환**

Vision

#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세상’



## Mission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자연사랑실천본부는  
교육, 학술, 문화, 봉사를 통해  
생명존중, 자연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자연과 어우러진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 사업소개

### 1 생명존중, 자연사랑에 대한 학술활동 및 정책연구

- 조상들의 대자연사랑 문화 연구
-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방안 '그린라이프' 연구
- 대자연사랑 학술 세미나 개최

### 2 대자연사랑 교육

- 대자연교육센터 설립
- 녹색환경교실 운영
- 자연탐방/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대자연캠프 운영

### 3 자연보존활동 및 캠페인

- 자연환경보호 및 정화사업
- 친환경 채식문화 홍보
- 자연사랑 캠페인

### 4 대자연사랑 문화사업

- 대자연사랑 도서 및 음악 제작
- 대자연행복체조 개발
- 대자연사랑축제 개최

### 5 대자연사랑 나눔 사업

- 지역 봉사 활동
- 재능기부 활동

## 법인연혁

2008

창립 발기인 대회

2011

- 창립 총회
- 대자연사랑실천본부 허가 (환경부 제398호)
- 대도학회 창립
- 중국 하얼빈 지부 창립
- 서울지부 창립
- 가수회 창립
- 확근회 창립
- 대구지부 창립

2012

- 글로벌코리아 창립
- 대자연사랑 청년단 창립
- 새마음회 창립
- 정가회 창립
- 대자연사랑청년단 캠프
- 뉴욕지부 창립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승인 (환경부 제 158호)
- 대자연사랑출발한마당대회
- 통일회 창립
- 자연의 숨결 I 음반 제작·발매

2013

- 대자연사랑청년단 캠프
-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 (기획재정부)
- 경기지부 창립
- 대한민국지킴이운동대회 공동주최

2014

- 대자연사랑 청년단 캠프
- 대자연사랑 한마음대회
- 전북지부 창립
- 부산지부 창립
- 자연의 숨결 II 음반 제작·발매
- 세계청년대자연사랑축제 개최 (대구 EXCO)
- 경북식품박람회 채식요리경연대회 주관
- 경남지부 창립
- 수상실적 - 해양수산부 장관상 수상

2015

- 대구지부 대구한의대학교 '자연사랑' 동아리 창립
- 대자연사랑콘서트
- 대자연사랑 학술 강연회
- 대자연 행복체조 보급 (경남지역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2016

- 국제본부 대자연문화세계 탐방
- 대자연사랑 청년단 캠프
- 대구지부·대구한의대학교 '자연사랑' 동아리 그린캠퍼스사업
- 그린플라모니 창립

환경문화예술NGO 그린플하모니의 첫 울림

# ‘자연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지구 이야기’

##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는 환경합창단 ‘그린플하모니’의 초연

그린플하모니는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의 첫 시작으로 지난 해 5월 음악과 자연을 사랑하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환경합창단을 창단하였습니다. 그린플하모니는 비교적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 12월 4일 환경문화예술 공연인 ‘자연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지구 이야기’를 초연하였습니다. 공연에는 대자연사랑실천본부 변정환 이사장을 비롯하여 전국 대자연사랑실천본부 산하 지부와 클럽들이 참석해 그린플하모니의 시작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안양시장을 대신하여 안양시청 환경사업소 민병무 소장이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 대자연사랑실천본부에서 만들고 그린플하모니에서 각색한 ‘자연음악’

이날 여러 음악들이 합창과 중창, 독창 등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과수원길’, ‘아름다운 나라’ 등 자연을 소재로 하는 기존 곡들 뿐 아니라 국제본부가 만들어 전 세계 대자연사랑실천본부 지회를 통해 각 나라에 보급하고 있는 창작곡들도 소개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하,  
저 멀리 살고 있나,  
알 수 없는 신비로 가득한 세상,

.....아득히 먼 옛날  
하늘 땅 몇 번 열렸나.....”  
(별빛의 노래 가사 중)



### ‘별빛의 노래’, 생명의 아득함과 신비를 일깨우다

그 중 ‘별빛의 노래’(독창:박선영)는 노래와 함께 밤하늘의 별들을 가득 담은 그림을 영상에 담아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의 나에게만 집중하고 현재의 시간에만 집중합니다. 눈을 뜨고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이웃이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으며, 인간만이 아닌 다른 생명체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손에 닿지 않아 빛으로만 우리를 찾아오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천체물리학을 발전시킨 수많은 과학자들처럼 ‘지구 저 너머의 또 다른 생명과 세상’에 대해 막연하나마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의 아득함과 신비로움을 조금이나마 별빛의 노래를 통해 느끼게 된다면, 하루 하루 바둥거리며 살던 어느 날 문득 우주와 맞닿는 더 크고 자유로운 나를 느껴보게 되지 않을까요.

### 감성-인지-실천으로 변화하는 생태시민

환경이라는 단어에는 인간을 중심으로 그 외적 요소(인공적인 것과 자연물)를 가리키는 주변적인 의미가 다소 담겨있습니다. 많은 환경운동철학에서 생태(에코)라는 말이 떠오르고 있는 것은 조금 더 생명(삶)에 집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 모두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존재로 서로 교감하고 공감한다면 자연스럽게 각자의 여건에 맞는 자연사랑의 실천방법이 모색될 것입니다.

###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는가’

환경운동가였던 아르네 네스는 “환경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도덕적 교화는 대중에게 희생과 책임, 우려와 도덕성을 더 보일 것을 요구하는 그릇된 인상을 심어주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삶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자유로운 자연경관을 더 소중히 여김으로써, 크고 다양한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자연은 너무나 가까운 존재이지만, 사람과 달리 말이 없기 때문에 자연을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환경교육에는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린폴하모니는 문화예술 활동을 시민교육 활동의 매개체로 활용해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성적으로 전달하는데 집중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시민과 함께 하는 자연의 소리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의 소리'에 참여할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중/ 고등학생~ 35세 미만(서울/경기)  
 모집인원 50명  
 활동혜택 자원봉사점수 인증  
 연습장소 안양아트센터 2연습실 (명학역)  
 연습시간 매주 일요일 오후 2:30 - 4:30  
 지원문의 0505-282-7729  
 카톡아이디 @그린풀하모니  
 \* 상기일정과 장소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NAVER** 그린풀 하모니를 검색해 보세요 검색  
 푸르고 건강한 지구촌을 위한 소리 그린풀하모니 Greenfull Harmony  
<http://gfharmony.modoo.at>



<p><b>공연일정 및 장소</b>                  일정 : 2017년 7월 1일(토) 오후                  장소 : 마로니에 공원</p>	<p><b>공연내용</b>                  초여름밤 시원한 바람과 함께 하는 자연음악 콘서트</p>	<p><b>출연진</b>                  환경합창단 그린풀하모니 외 성악가 및 음악 동호회</p>
---	---	--

자연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지구이야기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는 환경합창단

**그린풀하모니 창립기념공연**

지휘자 장철준 부지휘자 조갑연 연주자 김혜수

2016.12.04.(일) 오후 4시  
**안양아트센터 수리홀**  
 무료입장 / 자유석

주최 그린풀하모니 후원 사단법인대자연사랑실천본부

### “우리도 환경이야기를 해봐요”

이제 그린풀하모니 합창단원들은 스스로 환경합창단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면서 환경이야기도 해보려고 제안합니다. 이원준 단원은 단체의 취지가 담긴 자료들을 공부하여 합창단 소개 동영상을 만들었고,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하는 김채선 단원은 관객들에게 대본을 통해 환경감수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조길연 부지휘자는 “우리 음악은 다른 합창단에 없는 우리만의 음악입니다. 여러분들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라며 단원들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린풀하모니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소통,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모색합니다. 경제 논리와 갖가지 여타 목적에 가려진 사람과 자연이 가진 ‘그 모습 그대로의 삶(생명)’ 자체를 우선시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그린풀의 활동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2017년 그린풀하모니의 새로운 시도

올해 그린풀하모니는 서울시로 옮기면서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의 소리’를 기획 중입니다. 초저녁 여름, 야외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자연의 음악을 시민과 함께 부르고 들으며 우리 삶과 생명,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글: 박선하 (그린풀하모니 부대표)

네츄럴에코, 자연의 몸짓

# 2016 가을, 생활체조경연대회에서 행복체조를 시범하다

자연의 모든 움직임을 춤으로 나타내는 네츄럴에코(Natural Echo) 체조팀이 있습니다. 네츄럴에코 체조팀은 언제나 어머니의 품과 같은 대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아끼고 보호할 줄 아는 사람들의 동호인 모임입니다. 체조와 율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해 대자연의 사랑을 표현해보고자 행복체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유치원 등의 행복체조 보급을 위해 노력해오던 네츄럴에코 체조팀은 2016년 10월 30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배 체조대회에서 대회에 참여한 500여 명의 사회체육 동호인들에게 처음으로 행복체조를 시연하였습니다. 이는 행복체조를 사회체육인들에게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학교체육 뿐만 아니라 사회체육과도 하나 되는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체조팀이 앞에서 시연을 하면 어린아이에서부터 80세에 이르는 노인들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쉽게 따라하였고, 편안하고 쉬운 동작으로 함께하는 이들의 얼굴에는 행복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네츄럴에코 체조팀과 500여 명이 다함께 하나의 몸짓으로 따라하는 광경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2017년에도 행복체조는 사회체육인과 함께 새로운 봄의 아름다운 몸짓을 맞이할 것입니다.

행복체조의 몸짓은 새롭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존재한 것입니다. 몸짓이 인류의 언어가 만들어지기 이전 아득한 먼 옛날 신체언어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면 춤의 발생도 그때부터이며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대자연의 의미를 깨우치고 그 속에서 살아가며 자연과의 조화를 깨닫습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 별들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변화, 낮과 밤, 눈, 비, 바람, 천둥, 지진 등 자연계의 무한한 신비의 탄생과 죽음, 환희와 절망, 공포와 희망의 엇갈림 속에서 자연에 순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큰 의미의 춤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춤을 통해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터득하면서 생의 보람과 강렬한 삶에 대한 충동을 느낄 때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체조를 추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춤을 출 때에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무한한 인체의 신비를 깨닫게 되고 샘솟듯이 분출하는 위대한 힘을 실감하며, 육체가 하나의 소우주임을 알게 됩니다. 이 때 생의 순리와 희열 또는 삶의 참뜻을 깨닫게 되니 춤은 높은 의미에서 생의 철학이기도 할 것입니다. 즉 행복체조는 단순한 체조가 아닌 자연과 삶의 의미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가 산업 사회를 거치며 현대 사회까지 오면서 현대 문명의 음악과 춤들에 의해 잊혀졌을 뿐 인간의 DNA속에는 언제나 행복체조가 내재되어 있었기에 이를 이끌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춤은 단순한 예술이기 이전에 인류 발달이라는 차원에서 생의 약동이요, 그것을 본질로 한 인류 진화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움직임에 대한 본능적 감각이 있으며 춤에 대하여 직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체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대자연의 표정과 몸짓을 담은 행복체조를 통해 잊혀졌던 대자연에 대한 마음과 인간 본연의 본질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네츄럴에코 체조팀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츄럴에코 체조팀은 앞으로도 마음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된 모습으로 열심히 연습해서 모든 분들에게 행복체조를 보여드리고 알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범공연을 해오며 정식 출범을 하지 않았던 네츄럴에코 체조팀이 2017년 하반기에 정식으로 대자연사랑실천본부의 산하 클럽으로 창립을 할 예정입니다. 네츄럴에코 체조팀의 꾸준한 발전을 위해 모든 분들의 응원이 최고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 에너지는 체조팀의 무한동력이 되어 지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모든 분들께 진정한 자연의 의미를 전하는 행복한 체조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사진: 배봉선 (네츄럴 에코 대표)

대구지부 생태문화탐방

# 상주 경천섬 일대로 떠난 추계환경정화활동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었던 늦은 10월의 맑은 날, 대구지부 회원과 자연사랑 동아리 학생 76명은 버스 두 대에 올라 경북 상주에 있는 경천대 관광지로 향했다.

예전 어느 여름, 이곳을 여행한 적이 있었다. 아름다운 낙동강과 경천대의 비경에 감탄하며 경천대에 이르러 둘러보니 마침 내린 비로 인해 빗물에 떠내려 온 쓰레기가 경천섬 주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뛰어난 경관을 해치는 많은 쓰레기는 큰 아쉬움으로 남았고, 기회가 된다면 환경정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경천대 환경정화를 계획한 뒤 상주시청에 문의해보니 섬 중앙은 청소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섬 가장자리는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우리의 환경정화 의사를 전하니 시청에선 크게 반기며 멀리까지 와서 청소하기 힘든 구석진 곳까지 환경정화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크게 고마워했다. 드디어 가슴에 품고 있던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고, 그렇게 경천대로 향하게 되었다.

버스는 1시간 30분을 달려 어느덧 낙동강변이 길게 늘어뜨려진 상주의 경천대국민관광지에 이르렀다. 마침 울긋불긋 아름답게 채색된 단풍이 경천대로 들어서면 입구와 길가에서 마치 양손에 붉은 깃발을 들고 우릴 환영하듯 반겨주어 모두가 탄성을 지르며 즐거워하였다. 잠시 건자니 이내 낙동강변이 흰히 내려다보이는 전망대에 다다랐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니 낙동강이 한 눈에 펼쳐져 멋진 조망을 자아내고 있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연신 카메라로 풍경을 찍어대는 가운데 천천히 이동하여 경천대로 향했다



경천대는 태백산 황지에서 발원한 낙동강 1,300여리 물길 중 경관이 가장 아름답다는 “낙동강 제1경”으로 칭송받아 온 곳으로 하늘이 만들었다 하여 일명 자천대(自天臺)로 불린다. ‘경천대(擎天臺)’와 ‘경천대비(碑)’, 그리고 조선 인조 때의 석학 우담 채득기 선생이 은거하며 학문을 닦던 ‘무우정(舞雩亭)’ 등을 비롯해 많은 명승지와 유적지 및 드라마 세트장 등 술한 볼거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일행 모두는 경천대에 올라 굽어치는 낙동강과 맞은편의 넓은 황금 들녘을 바라보며 마냥 쏟아지는 감탄사와 함께 가을 풍경을 즐긴 후 시간에 쫓겨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인근 자전거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은 오래전 초창기 나무로 만든 자전거로부터 오늘날의 자전거까지 자전거의 역사와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자전거가 전시되어 있었다. 전국에서 자전거 보급률이 가장 높은 자전거의 고장답게 잘 꾸며진 박물관을 통해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어서 자전거박물관 바로 옆에 위치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야외에서 도시락을 먹고 난 뒤 해설사를 대동하여 넓은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지구의 생물, 한반도의 생물, 생물자원, 낙동강의 생물과 동식물 등을 주제로 8개 테마관으로 잘 조성되어 있어 지구와 우리 주변 생태계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되었다.

이윽고 환경정화활동을 펼칠 경천섬으로 옮겨 주차장에 도착하여 미리 나와 계신 상주시청 직원들로부터 쓰레기 봉투와 집계를 받아 들고 4개 조로 나눈 다음 각 조의 인솔자를 중심으로 청소를 시작하였다. 주차장 주변을 청소하는 1개 조를 제외하곤 모두 다리를 건너 섬으로 들어갔다. 이곳 경천섬은 낙동강 물길 가운데에 초승달처럼 떠있는 작은 인공섬으로 예전에는 수심이 얇아 걸어 다닐 수 있었지만, 지금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심이 깊어져 2011년에 완공된 경천교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다.



우리는 청소 지역을 3곳으로 나누고 섬 내부와 가장 자리를 따라 2시간에 걸쳐 청소를 진행하였다. 상류에서 떠내려 온 온갖 쓰레기와 오물들을 수거하여 큰 포대 20자루를 가득 채우고, 다함께 모여 기념 촬영을 한 뒤 다리를 건너왔다. 청소 덕에 깨끗해진 경천섬을 흐뭇하게 뒤돌아보며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다.

차에 오르기 전, 잠시 틈을 내어 주차장 옆에 위치한 역사의 현장인 도남서원(道南書院)을 잠깐 둘러보기로 하였다. 경상도의 6대 서원 중 하나인 이곳은 1606년에 건립되어 성리학을 가르치던 지방 유림의 서원이다. 당시 성리학은 지방 사림에 의해 학풍이 성립되고 발전하였는데, 그 기세가 대단했다고 한다. 그때 경북 상주 지역에 도남서원이 세워졌다고 한다. 이곳은 정몽주, 김굉필, 정여창, 이언적, 이황, 노수신, 류성룡, 정경세, 이준 등의 위패를 봉안하여 제향하고 있는 곳으로, 한때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

로 훼손되었으나 1992년과 2002년에 대규모 복원 사업으로 새롭게 단장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도남서원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고 차에 올라 다시 대구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몇몇 회원들에게 마이크를 넘겨 오늘 행사의 소감을 물었더니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함께 어우러진 절정의 가을 단풍이 참 인상적이었으며, 아울러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는 계기가 되어 참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더불어, 섬을 청소할 때는 모두가 열심히 하였지만 특히 평소 쓰레기 제거가 힘든 섬 가장자리를 위협을 무릅쓰고 깨끗이 치우고 나니 큰 보람을 느낀 감상을 밝히기도 하였다. 12월 초에 진행될 ‘독거노인돕기, 사랑의 연탄나르기’ 행사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모두 지친 몸을 쉬도록 차에 불을 끄고 하루 일과를 마감하였다.

글·사진: 이일봉 (대구지부 부회장)

2016 대자연청년여름캠프

# 자연사랑 동아리와 송도청년팀의 그날의 후기

지난해 8월 14일 대자연사랑실천본부가 주최한 대자연청년여름캠프가 개최되었습니다.

세계대자연사랑축제 개최 준비로 인해 2년간 휴식기를 거친 후 열려 더욱 뜻 깊은 캠프였습니다.

캠프에 참여하셨던 대자연청년들의 진솔한 그날의 후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자연으로 하나된 우리

이번 대자연청년여름캠프는 대자연사랑실천본부의 기획 하에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생 동아리 자연사랑과 송도청년팀이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자연사랑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 저의 죽마고우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동아리활동의 연장선으로 이번 여름캠프에 참가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었지만, 졸업 이후 대학생활에 집중 하다 보니 자주 만나지 못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 친구와의 우정을 다시 돈독하게 만들고, 자연사랑에 대한 실천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 이번 캠프의 참가를 제안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까'라는 걱정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여름캠프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1박2일이라는 시간동안 저의 우려와는 달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었던 캠프로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창영 선생님의 열정적인 환경 강의를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환경파괴의 가장 주요 원인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애니메이션 영상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해 두고, 에너지 절약 습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라면 강철원 선생님께서 진행하신 레크리에이션입니다. 물론 유익한 환경 강의, 남녀노소 모두 다 같이 동심으로 돌아가 물놀이를 하는 등 모든 시간이 즐겁고 알차게 보낸 시간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또래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이번 레크리에이션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달리 레크리에이션을 전문으로 하시는 강사님의 노련한 진행 아래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과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즐겁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울동을 따라하고, 다시 열심히 연습 한 후 팀별로 춤 대항을 했을 때는 제 친구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 우리들의 좋은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활동 시간 내내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저 역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캠프는 알찬 프로그램과 함께 '자연 보호'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추억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캠프라는 친근한 타이틀 안에 자연 생태계에 대해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이 역시 저에게는 정말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와 그토록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를 생각해보니 모두가 자연을 사랑하고 타인과 사랑하는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었기에 더욱더 가깝게 친해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대자연사랑실천본부에서 주최한 여름캠프의 가장 큰 이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캠프에 참여한 자연사랑 동아리나 송도청년팀이 서로 다른 단체의 소속이었음에도 '자연 보호'라는 하나의 마음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었기에 이 여름캠프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더운 날씨에 모두들 힘들고 지쳤겠지만 이렇게 잊지 못 할 캠프를 뒤에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진행해주신 대자연사랑실천본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표시를 전하고 싶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다시 한 번 참여하고 싶은 여름캠프였습니다.

글: 공민재 (자연사랑동아리 부회장)



### 즐기고, 배우고, 깨닫게 해준 캠프

대자연청년 여름캠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는 무척 버거운 일이지만 이날은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눈도 저절로 떠지고 몸도 가볍고 좋은 컨디션으로 버스를 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를 탄지 얼마 되지 않아 캠프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하여 원래 속해 있는 팀 말고 새로운 사람들과 팀을 짜고, 팀장을 뽑아 팀에 걸맞는 구호와 노래도 정하고, 각자 팀을 대표하는 그림도 팀장과 팀원 모두 함께 그려서 한 팀씩 무대 앞으로 나와 발표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송도운해팀 말고 자연사랑 동아리 회원들도 참가하여서 함께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처음 보는 탓에 낯을 가렸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자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팀 대항 물놀이를 하였는데 이처럼 몸을 움직이는 게임을 하면서 좀 더 친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레크리에이션도 하였는데 그 전에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내용의 영상을 본 것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 남자가 살아가는데 지구의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모든 동물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죽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다 보니 지구가 전부 쓰레기더미로 가득 차게 되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이 동영상이 우리 지

구에서 실제 일어나는 정확한 내용이 맞지는 모르겠지만, 현실도 이 영상과 비슷한 내용일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 자연을 정말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레크리에이션을 시작하였습니다. 사회자분이 너무 재미있어 계속해서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사람 모두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사회자의 재치에 정말 배꼽 붙잡고 넘어가도록 웃었습니다.

다음날 '우포늪'이란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 국어 선생님께서 꼭 가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던 그 우포늪을 실제로 가보았습니다. 여름이라 가만히 있어도 땀과 땀이 나 조금 힘들었지만 공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옆의 꽃이나 나무들 등 밖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식물들이 많아 신기하였습니다. 일정을 마친 후 뒤탈 별써 끝난 것 같고 되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원래 재미없는 것을 하면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지만 재미있는 것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낍니다. 1박2일의 짧은 시간동안 정말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대자연청년 여름캠프는 새로운 사람과도 인연을 맺게 해주고 자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자연을 아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캠프였습니다.

글: 박가현 (송도청년팀)



### 다시 생각해본 자연

38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의 여정으로 경상남도 창원군으로 대자연사랑 청년캠프에 다녀왔다. 대자연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자연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의 청년단을 알아가고 협동심을 키우기 위한 캠프였다.

출발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뜨거운 날씨가 시작되었다. 관광버스를 탄지 1시간 후, 숙소인레이크힐스 부곡리조트에 도착하였다. 리조트 주변으로는 푸른 산들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놀 수 있는 수영장이 있었다. 버스를 내리면서 이 풍경들이 우리의 기분을 들뜨게 만들었다. 연회장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어서 개회식이 시작되었다. 대자연사랑 실천본부 이사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본부 내빈 소개와 축사 후 우리의 본격적인 캠프가 시작되었다.

각자 다른 단체에서 모인 청년단들이 어울리며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조를 나누었다. 총 4개의 조로 나누고 조마다 조 이름, 조 구호, 조 노래를 만드는 시간이 주어졌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각 조에서 지은 이름과 구호, 노래를 발표할 때 각각의 개성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서로 간에 어색한 시간이 지나고 친밀감이 쌓이기 시작한 것은 수영장에서 2개의 팀으로 나누어 훌라후프 넘기, 고래싸움, 배구게임 등 게임을 했을 때였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서로 작전을 짜고 열심히 했기 때문인지 두 팀 모두 막상막하 무승부로 끝났다. 치열했던 게임이 끝나고 수영장에서 자유시간을 가진 후 이어 저녁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 다시 연회장으로 가서 강창영 팀장님의 자연사랑 강의를 들었다.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다시 일깨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주시는 고맙고 소중한 강의였다. 또, 여러 동영상을 통해 우리의 외부 감각기관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자극을 주

는 좋은 시간이었다. 강의가 끝난 후 레크리에이션이 시작되었다. 수영장에서 쌓인 피로가 남아있을 것 같았지만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면서 피곤하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에서 땀이 날 정도로 신나고 재밌게 놀았던 것 같다. 팀끼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팀장님, 단장님 등 여러 분들과 함께 해서 더 즐거웠던 것 같다. 첫째 날의 일정이 지나가고 둘째 날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숙소에서 아침식사를 한 후 우리는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창원군에서 유명한 우포늪에 갔다. 우포늪에 대해 설명해주는 가이드분의 안내를 따라 함께 우포늪으로 들어갔다. 습지(늪)란 물에 젖어 있는 땅 즉, 물이 주변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식물의 생태를 조절하는 주된 역할을 하는 곳으로 '물도 아니고 땅도 아닌 지역'을 말한다. 우포늪에는 소벌(우포늪), 나무벌(목포늪), 모래벌(사지포늪), 쪽지벌로 나뉜다. 우포늪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연 내륙 습지이다. 국제 랍사르협약에 등록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천연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규모가 큰 만큼 보호가 철저하다고 한다. 습지의 많은 기능 중 다양한 생물들의 보금자리 역할이 있다. 나무, 풀, 새, 어류, 곤충 등 자연에 없어선 안 될 중요한 것이 이 우포늪에 담겨 있는 것만 같았다. 우포늪에서 느낀 것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지 못한 자연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점이다. 우포늪을 끝으로 숙소로 돌아와 소감문을 발표함과 동시에 우리의 1박2일 일정이 끝이 났다.

짧다면 짧을 수 있는 1박2일이란 시간 동안 알차고 풍부한 일정에 많은 것을 느끼고 왔다. 특히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못한 자연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들이었다. 이 캠프를 통해 자연이 성장하는 것이 자연만 성장하는 것이 아닌 인간인 우리도 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글: 김지단 (송도청년팀)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 대구지부,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연사랑동아리가 함께한 활동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생 동아리 자연사랑은 대구지부와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한 달간의 준비과정을 걸쳐 3주간의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건강은 올리GO! 체중은 내리GO! CO2도 줄이GO!'라는 슬로건의 '건고 싶은 계단 만들기' 사업과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용석 사무처장님의 환경강의와 교내환경정화활동 사업을 실행한 자연사랑 동아리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교수연구실  
Professors' Office  
강의실  
Lecture Room  
실험실습실  
Laboratory



계단벽화 현판식에 참석한 대구지부 회원, 대구한의대학교 본부 교직원, 소미다미 연구소, 자연사랑동아리 학생들



### 그린캠퍼스란?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대학 운영 및 교류·협력, 교육 및 연구, 친환경 교정 조성 등의 사업수행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온실가스 대량 발생원 중의 하나인 대학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속가능 성장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그린캠퍼스 선정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린캠퍼스 선정대학이

- 1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대학 운영
- 2 미래의 친환경 인재 양성을 위한 친환경 교육 및 연구 실시
- 3 대학 및 지역사회에 친환경 문화 전파를 위한 참여 확산
- 4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교정 구축 등

지속가능 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재정 및 기술을 지원합니다.

### 사업목적

지속가능한 그린캠퍼스 조성 및 친환경 대학 문화 확산을 지원하여 대학이 국가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내 온실가스 다량 배출원 중의 하나인 대학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사업내용

- 1 대학별 3년간 총 1억2천만원(연간 4천만원) 재정지원
- 2 대학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감축 기술지원
  - 인벤토리 산정 및 프로그램 운영관련 기술지원
  - 대학 온실가스 인벤토리 활동자료 수집 방법 교육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략 교육
  - 구축결과 외부검증으로 신뢰성·정확성 있는 결과 제공
- 3 매년 성과보고회 및 홈페이지를 통한 그린캠퍼스 우수 추진사례 공유 및 확산
- 4 주요 일간지 및 SNS 이벤트 등을 활용한 그린캠퍼스 사업 및 선정대학 대외홍보



직접지원

재정지원  
대학당 총 1억2천만원 지원  
(매년 4천만원씩, 3년간)

기술지원  
대학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감축을 위한 기술지원  
담당자 집체교육 등

간접지원

우수사례 확산·공유  
성과보고회를 통한 우수사례 확산공유 기회제공

참여대학 홍보  
주요 일간지 및 SNS이벤트 등 활용 사업 및 참여대학 대외홍보



모두들 장시간 지쳐있는 가운데에도 하나하나 꼼꼼히 칠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누구 하나도 싫은 내색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엄청 추운 날씨에도 서로서로 몸을 녹여가며 담소를 나누면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닥을 흰색으로 칠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권보성 사무국장과 소미다미 연구소의 권기주 작가님



본격적인 페인트 작업에 지칠 만도 했지만 모두 열심히 작업한 결과 밑그림이 서서히 나타날 때마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첫날의 작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학기말 시험을 앞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솔선수범하여 참여하는 자연사랑 동아리 회원들이 대견하였고, 회원들끼리 서로 더욱 친해질 수 있었던 점 역시 좋았습니다.

**그린캠퍼스 프로젝트**  
**걷고 싶은 계단 만들기 프로젝트**  
 (2016. 11. 27- 12. 07)

애초 벽화작업이란 것을 하기 전에는 막연한 생각으로 많이 훼손되어 있는 계단을 골라서 계단에 색을 입힘으로써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단순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작업을 시작해보니 벽이 아닌 바닥, 그것도 계단에 작업을 하는 만큼 난이도가 높았으며, 그림의 도안 작성 역시 일반 벽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첫날 우리가 시작한 일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페인트를 칠하고 색을 입히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계단은 오랜 시간 외부의 비나 오염 등으로 인해 표면이 많이 부식되어 있었으며,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구석진 곳이어서 습기로 인해 이끼가 낀 계단을 모두 철수세미로 긁어내는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A, B, C 세 개의 조로 나누어서 작업하였는데 단순한 노동으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육체적으로도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첫날이라는 기대감으로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이끼를 포함해 오염된 바닥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작업한 것은 예폭시라는 코팅제를 발라 페인트칠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주말이 지나자 본격적인 채색작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채색작업을 하는 동안 여러 교수님 및 직원 선생님들과 공동작업을 함으로써 함께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니는 학교를 우리 손으로 가꾼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채색작업을 할 때에는 비가 와서 계단의 칠이 약간 벗겨지는 일이 있긴 하였지만 모두들 온 정성을 다해 색칠한 덕분에 우리들의 걷고 싶은 계단은 서서히 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더 계단 색칠 작업이 있는 후에야 모두 완성되었는데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색이 너무 아름답게 나와서 그 기쁨은 두 배, 그 이상이었던 활동이었습니다. 계단을 재미있게 걸으면서 환경까지 생각해보는 '계단 벽화 사업' 성공!

글: 이동민 (자연사랑 동아리 기획부장)  
 사진: 정은진 (자연사랑 동아리 총무)





**그린캠퍼스 프로젝트**  
**그린캠퍼스 워크숍**  
**(교내 환경정화 활동 및 환경강의)**  
**(2016. 12. 3)**



그린캠퍼스 특강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변귀남 지도교수



워크숍 진행을 맡고 있는 정은진 총무

2016년 12월 3일, 우리 대학 교직원 선생님들과 자연사랑 동아리 회원들이 아침부터 부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매년 독거노인에게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하는 날입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연탄나눔 활동 참여를 2014년부터 시작하여 벌써 햇수로 3년차가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눈을 비비며 나와 다 같이 용기종기 버스에 타,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 경산지역 한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저희들을 밝은 미소로 맞이 해주시는 할머니께서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연탄을 옮기기 위해 우리들은 일사분란하게 두 줄로 서서 양쪽에서 배달을 시작하였습니다. 차로 들어가기 힘든 골목 안쪽은 사람이 직접 옮겨야 하는데, 노인분들이 직접 옮기 시기에는 힘에 벅차기에 저희들이 방문하여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옮길 때 마다 온정이 옮겨지는 것 같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옮겨야 하는 연탄이 한 장 남았을 때, "마지막 탄입니다."라는 구호들을 다들 외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옮겼습니다. 연탄을 옮긴 후, 다들 지치지도 않는지 서로의 얼굴에 훈장을 남기며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연탄 하나라도 이렇게 모두가 즐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연탄 나눔활동 후, 다 같이 학교 근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함께 학교의 환경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 B, C팀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학교 교문 앞을 시작으로 한학년 앞까지 학교의 모든 실외 공간 구석구석을 집게와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다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쓰레기의 양에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환경정화활동을 주로 교외에서 해왔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외부보다 내부를 먼저 신경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 중 A, B, C팀 모두가 가장 많이 들고 왔던 쓰레기는 담배꽂이였습니다. 교내에서 금연 캠페인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우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경정화활동으로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흡연으로 인해 환경도 오염되지만, 자신의 몸 또한 오염시킨다는 것을 인식하여 많은 분들이 하루 빨리 금연을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이날은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참가하였는데 해외에 유학까지 와서 우리 학교를 정화하는 활동에 동참해주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더욱 분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자연을 아끼자는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 교내를 깨끗이 만들어 갔습니다. 환경정화활동 후 몸은 힘들었지만 학교가 깨끗해졌다는 생각에 상당히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공간을 환경정화로 인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경정화활동 후 지치지만 교내를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뿌듯한 마

음으로 환경강의가 준비되어 있는 강의실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대응이라는 주제로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용석 사무처장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기후변화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사례, 환경도시와 그린캠퍼스 사례를 소개해주셨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업의 경영, 도시, 관광, 에너지, 농업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나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노력과 행동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에서도 학생, 교수, 직원 등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이제는 그 방법론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을 다시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말미에 우리가 앞으로 되새겨야 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논제 인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독거노인 연탄나눔 봉사활동과 환경정화활동, 환경강의까지 유익한 경험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낼 수 있던 날이었습니다. 뜻 깊은 활동에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 교수님, 직원 선생님, 그리고 동아리 회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곳곳에 자연사랑을 실천 해 나가겠습니다.

글: 이동민 (자연사랑 동아리 기획부장)  
 사진: 정은진 (자연사랑 동아리 총무)

# 1. 지속가능발전이란?



“산골에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각각 웅달샘이 있었는데 깨끗하고 물맛이 좋았습니다. 웅달샘이 좋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을에서는 늘어난 사람들이 고르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한 사람이 하루에 떠갈 수 있는 순서와 양을 정해놓고 차례에 따라 이용했습니다. 마을 청년회에서는 웅달샘 주변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사람이 늘어나 한 사람이 마시는 물의 양은 좀 줄어들었지만 사람들은 부족하지 않게 계속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한편, 다른 마을에서는 물장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물을 다른 마을에 팔았습니다. 물장사로 돈을 벌게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웅달샘 물이 얼마 남지 않자 서로 먹겠다고 아웅다웅하였습니다. 물은 거의 바닥을 보였고 사람들의 실랑이 속에 흙탕물의 웅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흙으로 지저분해지자 이번에는 아까운 물이 흙으로 더러워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시멘트로 웅달샘 바닥과 옆을 발랐습니다. 그러나 시멘트는 흙뿐 아니라 물이 나오는 자리도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그 웅달샘은 더 이상 물을 내지 못하고 그 자취만 헛하니 남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추수 뒤에도 꼭 종자를 남겨둡니다. 종자는 다음 해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보릿고개를 넘으며 배가 고프지만, 돈이 없다고 종자를 먹어버리거나 팔면 이 농부는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마치 농부들이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를 소비하지는 않듯, 지속가능발전은 “현재의 욕구 충족 수준이나 성장 정도는 모자람이 있을지라도 미래에도 계속하여 욕구를 충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1962년 레이첼 카슨이 출간한 '침묵의 봄'은 과학기술이 초래한 엄청난 환경오염에 대해 경고하며 사람들에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시켰습니다. 또, DDT와 같은 살충제와 농약이 새, 물고기, 야생동물, 그리고 인간에게까지 미치는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결말을 고발하였습니다. 이 책으로 촉발된 환경 논쟁으로 미국에서는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세계적인 환경운동의 확산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논의가 전면적인 논쟁으로 확산된 계기는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발표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인구폭발과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100년 안에 지구의 자원, 식량, 환경은 파괴적인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등장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972년 6월 유엔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113개국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인간 환경회의를 개최하고 '인간환경선언'을 제정·선포하였으며, 12월에는 유엔에서 환경문제를 전담할 기구로 '유엔환경계획(UNEP)'을 발족시켰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출간하면서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해법으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더욱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습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부르는 이 보고서는 환경정책과 개발전략을 통합시키기 위한 틀을 제공하였습니다. 즉, 환경보전은 경제개발을 희생하고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지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할 환경 자원을 고려해야 하며,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지속가능발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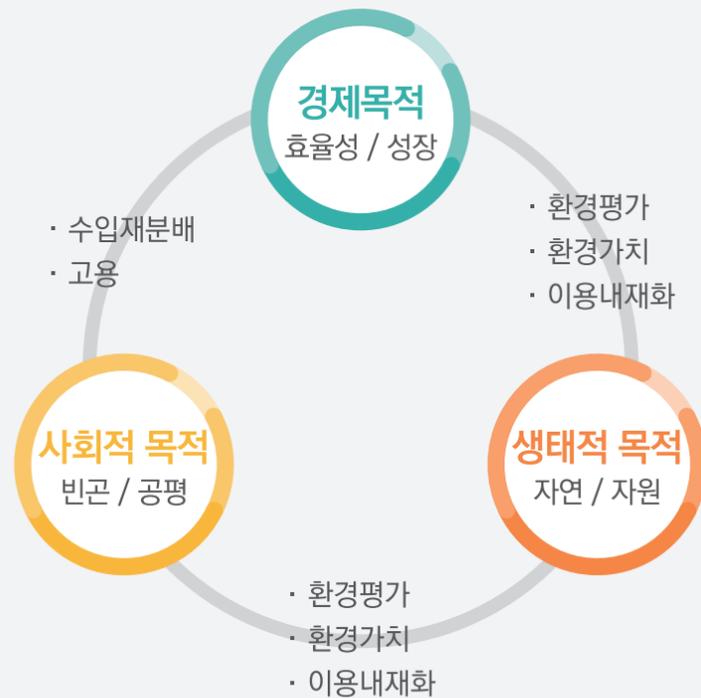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 용어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에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 이라고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담론으로 시대적 조류와 상황에 따라 활용 방법과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90년대 이전에는 경제, 사회, 환경을 서로 상호작용하는 별개의 영역으로 보고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을 대립관계로 보았으나, 이러한 틀을 깬 개념이 지속가능발전으로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존을 각각의 영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시너지 현상으로 재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회의와 논의를 거치며 인간사회는 환경에 내재되어 있고 경제는 사회활동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시점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근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992년 이후 20년이 지나 2012년 6월 열린 리우+20정상회의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채택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경제 위기, 사회적 불안정, 기후변화, 빈곤퇴치 등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각국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녹색경제를 제시하고,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는 절차에 합의했습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

####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채택

2015년 9월 세계 193개 UN회원국의 만장일치로 2001~2015년까지 추진해왔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할 Post-2015 의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습니다.



###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으로...

첫 번째는 세대간 형평성입니다. 현 세대의 풍요를 위해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천연자원과 쾌적한 환경, 의료보험 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제도 인적 자원과 안정적 재정구조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삶이 더욱 쾌적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환경을 비롯하여 개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직업에 대한 만족, 쾌적한 주거환경,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농산물 확보, 사회적 인정, 12건강 유지 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통합입니다. 사회적 부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급격한 사회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적 의식과 가치관을 갖춰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국제적 책임입니다. 지역의 환경문제와 지구환경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며, 국가 간 경계를 넘어 환경보전, 빈곤퇴치 등 전 지구적 차원에서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계속]

[글쓰는순서]  
1. 지속가능발전이란?  
2. 지속가능발전 방안과 실천사례  
글·사진: 오병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 행복합시다!

## 1. 들어가는 말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갈구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행복해야 한다. 다시 말해 행복은 우리의 소망이자 당위이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내면을 살펴보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고민이 있거나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걱정거리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걱정 없는 집이 어디 있나?'라는 말로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다. 행복해야 할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원인은 다양각색이다.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백 사람이면 백 사람이 각기 다른 이유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여기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직면해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온다. 아니면 문제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문젯거리로 둔갑하여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방이 하나인 작은 집이라도 있으면 원이 없겠다'라는 사람도 10평짜리 집을 사서 살다보면 머지않아 15평, 20평, 25평... 등의 집이려야 편하겠다고 느끼게 된다. 또 다른 예로는, 100명 중 100등 하는 학생이 90등만 되면 좋겠다고 여기다가 90등이 되어도 늘 행복하지 못하고 이내 '90등'이라는 것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온다. 그리하여 행복의 요건은 80등 70등... 1등으로 변하게 된다. 2등하면 굳이 1등을 탐내지 않을 것 같지만 2등한 사람은 1등을 치열하게 갈망하게 된다. 이와 비슷한 예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문제 해결을 통하여 행복해지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 2.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근본 원인

행복에 이르는 길에 장애가 되는 일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장애물들을 다 해결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다. 비록 새로운 인생이 반복된다 해도 수많은 장애물을 없애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다양하게 행복에 장애가 되는 근원을 찾아야 하지만, 알고 보면 모든 장애의 근원은 하나이고, 그것은 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비롯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은 성현들은 이 우주를 '하나의 꽃世界一花', '대동세계大同世界', '동체同體', 등으로 표현하며 깨닫지 못한 못 군생群生들을 깨우치려고 일생을 바쳤다.

그리고 현대물리학에서는 이를 양자의 '파동함수'라고 하고 이 파동함수는 이원성二元性이 없는 비이원성, 즉 '하나'로 그 '하나'라는 사실을 실험으로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립된 이론이 David Bohw의 비국소성非局所性원리(Non-Locality Principle)이다. 이러한 양자의 파동함수는 관찰자(自我)가 있으면 입자화되어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 입자는 이원성이며 이렇게 입자화 되는 것을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부른다. 일본계 미국물리학자인 미치오 카쿠는 "원자를 이해하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단언하고 있다. 즉 원자 속에 우주의 원리가 다 들어 있다는 말이고 원자와 우주는 '하나'라는 말이다.

또한『주역』의 계사하권 제2편에 보면 "나의 몸을 알면 모든 물질을 안다. 근취제신近取諸身 원취제물遠取諸物"라 하였다. 원자와 우주가 하나이고 '나'와 모든 형상을 하나로 이어 주는 것이 양자의 '파동함수'이고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나라의 원효대사는 그의『기신론소』에서 불각불覺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불여실지不如實知 진여법일고자眞如法一故者 근본

무명根本無明, 유여미방야猶如迷方也 (불각이란) 우주 법계가 '하나'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근본적인 무명으로 마치 방향을 잃은 것과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앞선 성현들이나 현대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의 삼라만상은 '하나'임을 역설하고 있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우주가 '한 가족'이며 '한 송이 꽃'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르침이나 실험결과를 믿기 어려워하며 소위 '고통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다.





### 3. '하나'임을 자각하는 길

태어나면서부터 상대적이고 이원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주의 삼라만상은 하나'라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즉 태어남 자체가 부정父精과 모혈母血이 합해지고 거기에 식識이 들어가서 세 가지가 어우러진 것이고, 모든 교육이 뉴-톤식 물리학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상대적이다. 그러나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자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궁극의 경지인 '하나'임을 이해하고 자각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다행스럽게도 과학적으로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실험들이 백여 년 전부터 이루어졌고 성공하였다. 특히 아인슈타인과 치열한 토론을 벌인 보어와 '양자가 없다면 우주가 출현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단언한 존 휠러, '양자 영역의 변수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한정적이며 독특하고 모호하지도 않은 물질 개념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한 데이비드 봄, '고전물리학자들은 현대물리학이 과학과는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조차 가지고 있다.'라고 한 하이젠베르크, 양자물리학에 대한 많은 책을 저술한 일본계 미국물리학자인 미치오 카쿠 등 수많은 양자물리학자들이 이 우주는 하나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고 주장하며 실험을 통하여 설명해 왔다.

근·현대의 물리학자들의 주장보다 2,000여 년이나 앞선 옛날에 동양의 많은 성인과 현자들이 경전을 통하여 모든 것은 동일체同一體이지 개체個體로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가르쳐 왔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고 노자·공자·예수와 그들의 수많은 제자들이 논서論書를 통하여 강조하여 왔다.

위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수많은 가르

침들을 통해 '우주가 하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대표적인 가르침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은 '제법무아諸法無我' 즉 이 세상에 이원적이고 개별적인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이를 체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시布施와 명상을 제시하였다.

노자는 '도道를 도道라고 말하면 진정한 도道가 아니고 이름을 붙이면 진정한 이름일 수 없다.'라고 하여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상대적인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 증용中庸에서는 희로애락喜怒哀樂적인 상대적 개념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중中'이라 하여 '하나'임을 설파하시고 이를 체득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신약성경에서는 번뇌 없는 '마음'이라야 '하나'임을 보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가르치고 이를 체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제시하였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성인·현자·양자물리학자들이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체득하기 위해선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보시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있다.

대자연사랑실천본부 설립의 기본적인 사상도 이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세계 한집안' 사상이며 모든 사물과 나는 하나라는 물아일여物我一如사상이다. 다시 말해서, 대자연은 상대적인 대자연이 아니고 대자연이 바로 '나'라는 실제 하는 진실을 알아차리고, 이에 따라, '나'인 대자연을 사랑하자는 운동이다. 깨달음에 도달하는 길을 대자연을 사랑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인류의 생존이 보장된다.

글: 이수덕 (불교방송국 이사)

# DGB금융그룹의 환경사랑과 지속가능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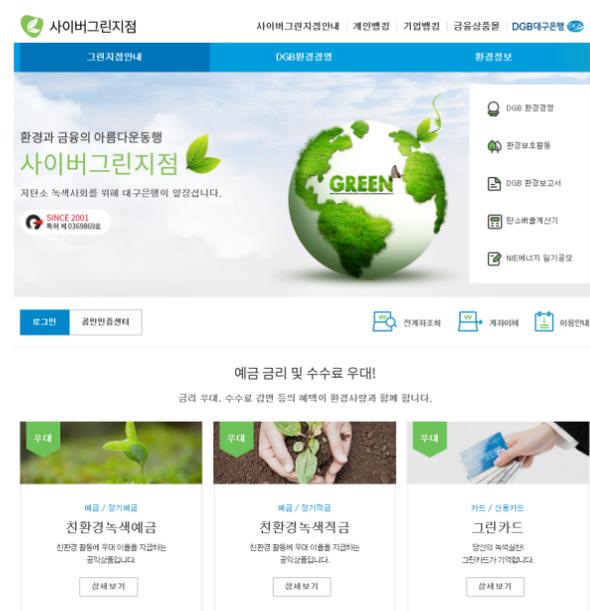
DGB금융그룹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친환경 금융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CDP) 기후변화 대응 우수,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DJSI) 선도, 국내 금융권 최초 녹색경영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등 국내외에서 환경경영 모범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DGB금융그룹이 환경경영을 중심으로 실행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추진 과정과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환경사랑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DGB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DGB대구은행은 2006년 지속가능경영을 선포한 이후,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가입과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nancial Initiative)에 서명함과 동시에 지속가능경영을 사업부문별로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4개의 실무협의회를 설치하였다. 이 가운데서도 환경경영협의회는 이전의 봉사 위주 환경활동을 기업의 경영전략과 연계시켜 금융업의 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친환경 경영활동 파악을 시작으로 에너지 및 자원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친환경 사무용품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녹색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를 통한 친환경금융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DGB대구은행은 2010년 들어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경영시스템(ISO4001)과 녹색경영시스템(KSI 7001/7002) 인증을 받았고, 2011년에 녹색경영을 내부 규정으로 마련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게 되었다. 또 2012년에는 전 임직원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여 직장은 물론, 가정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환경 중요성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보조사업 추진에 동참해 금융기관 최초로 반야월지점(2008년)과 경주지점(2008년)에 태양광발전 설비(15kw)를 설치하였다. 또 은행 본점에는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여 냉난방 비용절약과 건축물 수명연장 효과와 더불어 대구은행의 지속가능경영 실천의지와 환경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려주고자 하였다. 지난 2016년 신축한 대구은행 제2본점은 국내 친환경건축물 최우수등급을 획득함은 물론, 미국의 LEED(친환경건축물 인증)에서도 골드등급을 받아 글로벌 모범 환경경영 우수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기도 했다.



론, 저감잠재량을 파악하는 등 구체적 감축방안을 마련하였다. 또 지역사회의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 추진해 온 'NIE에너지일기공모전'은 환경부장관상을 대상으로 한 명실공히 전국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운영해 온 'DGB대학생녹색기자단'은 저탄소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역 대학생들의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의 사막화방지사업을 전개해 지난 5년간 매년 수십 명의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식수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DGB대구은행의 환경사랑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활동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경제적 활동은 환경상품 투자와 개발, 환경성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 책임 활동은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시설 운영,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직원들의 전사적 참여를 통해 추진해 왔다. 사회적 책임 활동은 저탄소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DGB사회공헌재단과 DGB봉사단이 지역 환경지킴이 역할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책임금융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활동은 전기절약상품, 환경 SRI 펀드 등 친환경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를 비롯해, 환경성정보를 고려한 여신심사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DGB금융그룹이 환경사랑을 통해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이와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모델을 완성함으로써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 사회와 함께하고자 하는 착한기업의 경영패러다임으로 이해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글: 김경룡 (DGB금융지주 부사장)





본부소식



대자연사랑청년단 여름캠프

대자연사랑청년단 여름캠프를 8월 13일에 실시하였다. 이번 캠프는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생 동아리 자연사랑과 송도청년단이 함께 참가하여, 1박2일간 환경 강의, 레크레이션, 우포늪 생태탐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2016 추계지부간담회

9월 25일 대전 태화장에서 추계 전국지부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를 통해 본부와 각 지부간의 교류 시간을 가졌다.

제7차 정기총회

2017년 3월 4일에 제7차 정기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지부소식



부산 사무소 개소식

부산지부는 전해봉 회장의 회원들이 함께 사무소 개소식을 8월 4일에 가졌다.



'자연사랑' 개강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생 동아리 '자연사랑'은 9월 22일 교내에서 개강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하여 동아리 회원들과 지도교수, 대구지부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하천정화활동'

경기지부는 8월 12일에 안산 시자원봉사센터와 공동주최로 청소년과 함께 안산 일대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대구동구청장애 생활체조경연대회에서 '행복체조' 시연

대구지부 소속 배봉선 대구광역시 동구체조협회 회장은 10월 30일 500여명의 사회체육 동호인들이 참여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기 체조대회에서 행복체조를 시연하였다.



그린폴로하모니 창립총회

인산행복커뮤니티에서 10월 29일 그린폴로하모니의 창립총회가 열렸다.



'자연사랑' 벽화로 재생시키기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생 동아리 '자연사랑'은 10월 1일, 10월 8일 두 차례 지붕벽화, 정원벽화, 축각벽화, 정크아트벽화 등 다양한 소재와 방법을 이용하여 비산동의 낙후된 공간을 재생시켰다.



상주 경천대 '생태탐방'

대구지부는 10월 29일 '자연사랑'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상주 경천대 '생태탐방'을 실시하였다. 자연과 어울린 풍경을 직접 체험하고, 그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 하였다.



런천미팅

대구지부는 10월 13일 대구한의대학교 한학촌에서 자연과 건강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여 '자연사랑' 동아리 회원과 대구지부 회원이 참석하였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다링 캠페인' 참가

경기지부는 10월 17일 서울 남산백범광장에서 범죄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3회 다링캠페인에 참가하였다.



에너지의 날 '불을 끄고 별을 쬐다'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생동아리 '자연사랑'은 8월 22일, 대구시와 대구에너지시민연대가 개최한 제13회 에너지의 날 행사에 참가하여 부스 운영과 청사 초롱 빛밧올레 걷기 프로그램 진행보조를 맡았다.



심장병어린이 위문공연

'그린폴로하모니' 합창단은 11월 12일 서울아산병원에서 매년 11월 개최되는 심장병환우를 위한 자선공연인 '심장병어린이 위문공연'에 참가하였다.



안양사랑한마음합창제 개막공연

'그린폴로하모니' 합창단은 11월 19일 '제1회 안양사랑한마음합창제'에서 개막공연을 맡아 공연에서 '산안개'와 '아름다운 나라'를 불렀다.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대구지부는 12월 3일 경산시 일대의 '독거노인 돕기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연탄나눔 봉사활동에는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생 동아리인 '자연사랑'이 함께 참가하였다.



창립공연

'그린폴로하모니' 합창단은 12월 4일 안양아트센터 수리홀에서 '자연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지구이야기'라는 슬로건으로 창립공연을 펼쳤다.



자연사랑 2016학년도 DHU 자기주도형 사회봉사 프로그램 최우수상 수상

1월 6일 '자연사랑' 동아리는 2016학년도 DHU 자기주도형 사회봉사 프로그램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자연사랑' 그린캠퍼스 교내 벽화사업

'자연사랑' 대학생 동아리는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대자연사랑실천본부대구지부의 지원을 받아 '건강은 우리 GO! 체중은 내리GO! CO도 줄이GO!'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교내 벽화사업을 진행하였다.



인물동정



변정환 이사장, 대구한의대 명사초청특강

10월 13일 대구한의대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대자연과 건강'을 주제로 변정환 이사장의 특강이 열렸다.



변정환 이사장, 제3회 전국시조경창대회 대상 수상

변정환 이사장은 지난 26일 서울광진문화원에서 열린 석암시조대상 제3회 전국시조경창대회에서 일반부에 출전해 대상이라는 성적을 거두었다.



강철원 회원, (사)한국이벤트협회 회장 취임

강철원 (주)에일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2월 17일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 73 호텔라온제나 5층 에페르넬홀(대연회장)에서 (사)한국이벤트협회 대구·경북지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고경호 회원, 꽃보다 아름다운 자원봉사 수상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이하여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경기지부의 고경호 회원이 꽃보다 아름다운 자원봉사상을 수상하였다.





### 1. 대자연사랑을 아름답게 디자인 해주실 재능기부자를 찾습니다.

모집분야: 포토샵, 일러스트, 동영상 편집, ppt 등  
 모집인원: 0명  
 지원방법: inlakorea@daum.net 으로 간단한 본인소개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자원봉사점수 인정과 경력증명을 지원해드립니다.

### 2. 대자연사랑잡지 청년리포터 모집

모집분야: 취재, 촬영, 글  
 모집인원: 지부별 0명  
 지원방법: inlakorea@daum.net 으로 간단한 본인소개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자원봉사점수 인정과 경력증명을 지원해드립니다.

### 3. 직접 촬영하신 아름다운 자연사진을 보내주세요.

풍경, 동물, 식물 사진이나 그 밖의 환경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진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주세요. 선정된 작품은 보내신 분 이름과 함께 본지에 게재됩니다.  
 보내실 곳: inlakorea@daum.net

### 4.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대자연사랑실천본부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기부금공제혜택을 위해 우편/팩스/이메일 또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대자연사랑실천본부는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 후원계좌 안내

■ 신한은행 100-031-315439 사단법인 대자연사랑실천본부  
 ■ 후원문의 E. inlakorea@daum.net T. 02-732-1359

## 만성병 및 난치병 등을 역점 치료하는 한방의료기관

제한한의원은 5천년 민족의학의 전통을 계승한 3대 의가로 21세기 글로벌 한의원으로서 모든 질병의 근원을 다스리며 동시에 예방치료를 중시하는 심의로서 만성병 및 난치병 등을 역점 치료하는 한방의료기관입니다



원장 변정환

- 현재 (사)대자연사랑실천본부 이사장
- 현재 대구한의대학교 명예총장
- 현재 제한한의원 원장
- (전) 국제동양의학회초대·이대 회장
- (전)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 (전) 대한한의학협회 회장
- (전) 한국유교학회 회장
- (전) 국제 Lions 협회 한국복지지구총재협의회 의장



제한한의원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34(봉산동) / TEL. 053. 423. 2233 / FAX. 053. 426. 1159

www.jhmedi.com

# 아미 행복빵

## 현미와 한약재로 바르게 만든 건강한 자연발효빵

현미와 울무, 다양한 한약재로 구워낸 행복빵은  
밀가루, 우유, 계란, 유지, 흰설탕,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연 재료를 발효시켜 만들어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환자들도 즐겨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자연발효 빵입니다.  
행복빵은 대구한의대학교 명예총장  
변정환 박사님이 고안한 한방 건강빵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36-1(봉산동) 빵 빵 한 빵

053.423.0010



◀ 반월당네거리      신한은행      봉산육거리 ▶  
미래에셋      제한한의원      행복빵  
봉산문화거리

HAPPY BAKERY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36-1(봉산동)

# 화이트 치과의원

Dental Clinic White



이우근

치의학박사 / 대표원장  
대자연사랑실천본부  
이사 · 사무총장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429 팔용프라자 303호  
MP 010-8871-7033  
TEL 055)297-7528





(주)다소니여행사는  
'대자여사랑' 과  
함께 합니다.

여행 고사상, 당신의 마음을 두드려다  
**유림속**  
**나만의 색깔을 찾아서...**  
THEME in EUROPE

다소니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순 우리말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과 여행의 행복한 여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임직원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국내여행업무**

당일여행, 숙박여행 기차여행 등 국내의 명소의 관광업무

**해외여행업무**

비자발급대행, 항공권 판매, 호텔판매, 기획여행상품 판매 패스 판매

**하나투어 전판점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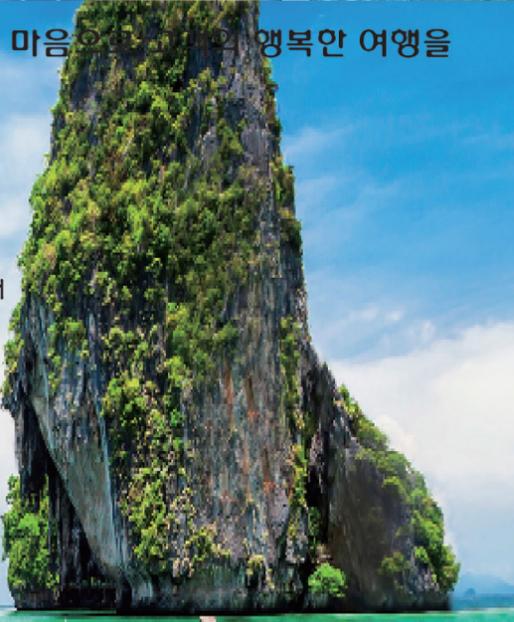
하나투어에서 판매하는 패키지등 모든 상품의 판매를 대행

**행사 기획 운영**

EXPO, 축제 등 국내국제행사 기획 및 운영

**관광버스 운영**

45인승, 25인승전체 버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318 대진빌딩 502호 (오금동, 대진빌딩)  
 TAL : 02-400-1828 FAX : 02-407-1828  
 CEO : 천원섭 H-P : 010 -9345-8520  
 E-Mail : hana0409@hanmail.net

전통과 첨단단의 조화  
한의학의 미래를 열어가다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

**한방 척추·관절센터**(비수술적 한방치료)  
**한방암센터**(한방 면역력 강화)  
**한방중풍센터**(환자 맞춤형 중풍치료)

- 한방내과센터**  
보양, 화병불면, 소화기질환, 갑상선질환클리닉
- 한방알레르기센터**  
면역증강, 성장장애, 학습부진, 비염, 아토피, 안구건조증클리닉
- 한방척추관절센터**  
척추관절, 재활(골절/수술), 교통사고후유증, 마비클리닉
- 한방중풍센터**  
중풍, 치매, 심혈관질환, 파킨슨클리닉
- 한방암센터**  
약물치료, 경혈순환치료, 항암이식치료, 명상힐링치료
- 정안(한방성형) 피부질환 비만센터**  
정안(한방성형), 피부질환, 여드름, 비만, 안면홍조, 탈모클리닉
- 한방여성질환센터**  
월경, 여성질환, 산후보양, 임신, 갱년기질환
- 한방건강증진센터**  
한방검진프로그램

문의전화 **053)770.2000**



The  
International  
Nature  
Loving  
Association  
Korea

사단법인대자연사랑실천본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원6안길 23

T 02-732-1359

F 02-732-1357

E [inlakorea@daum.net](mailto:inlakorea@daum.net)

H <http://the-inla.or.kr>

COLOR OF NATURE

Green Flash (그린 플래시)

녹색섬광, 자연의 아름다운 빛

그린플래시는 해가 뜨거나 질 무렵 해의 위쪽 테두리에 몇 초 동안 보이는 녹색의 빛을 의미합니다.

자연을 담은 컬러로 모든이에게 영감을 주는 컬러입니다.